

## “집권하면 지역 탕평인사 北김정은 만날 용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본보 인터뷰 ▶ 5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3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내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와 예산 정책은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형성될 것이라며, 광주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포·부산 간 철도고속화 등을 통해 영호남이 함께 발전하는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박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혁당 문제와 관련, 박 후보는 “유족들이 동의하신다면 만나 뵙겠다”며 “지난 시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죄송스럽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과거 어땠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를 치

유하고 화해하면서 미래로 나아가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인사 영입과 관련, 박 후보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대통령 차원에서라도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모시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지역 산업, 지역 인재, 지역 과학기술 육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핵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려 한다”며 “특정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능성 많은 산업을 발굴하고 그 산업을 뒷받침할 지역 인재들을 키우고, 필요한 과학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정부 인사와 예산 배정에서 기계적 형평보다는 지역 갈등 해소의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형평성을 추구하겠

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과 관련, “광주·전남 등 호남이 선도시업 지정과 인구 비례의 예산배정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계획을 다시 검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광주에 복합 문화산업단지를 조성, 전국의 문화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들어 문화산업의 중심지이자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등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편,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고속화도 단계적으로 검토, 영호남이 함께 발전하는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암F1 본격 시동

13일 오전 광주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앞 광장에서 열린 ‘2012 F1 코리아그랑프리 D-30 기념 F1 머신 게릴라 로드쇼’에서 전남 R-Stars 소속 여성 레이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는 F1 코리아그랑프리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볼 조성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서울·광주·목포·여수·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親盧 2선 후퇴 없인 대선승리 없다

민주 ‘문재인 참모그룹 백의중군론’ 부상

뉴스 초점

“친노(친노무현)계는 2선으로 후퇴하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연승을 하며 대세론을 이어가자 당 안팎에서 나오는 소리다.

경선 과정에서 빛이 난 ‘문 대 비문’ (문재인 대 비문재인)간 갈등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친노 핵심인사들이 백의중군론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당 분란을 잠재우고 대선을 향해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보 선출 후에도 당의 분란이 가속화할 경우, 당 밖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출신 3선인 박영선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 후보에게 핵심 참모 그룹 문제가 왜 따라다니지 않느냐”

라며 “참모그룹의 백의중군 선인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에 “문 후보가 집권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그룹은 청와대에 함께 입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 후보의 경선 승패를 떠나 친노가 민주당 전면에 있을 경우, 연말 대선 승리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친노 핵심그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내재돼 있다.

우선, 문 후보 등이 중심이 된 친노 핵심세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를 장악, 인사 전횡을 하며 호남 차별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수도권 일부 호남인은 “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차라리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패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가 친노인사들의 특징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친노 핵심세력이 1선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게 뼈 아픈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에서도 친노 핵심세력이 아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러한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 친노 인사들은 인위적 계파 배제 방식으로는 또 다른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후보 본인도 ‘친노 2선 후퇴 주장’을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들린다. ‘친노·비노 프레임’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억울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민주당 분열의 원인은 친노핵심세력에게 있다”며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버릴 때 대선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부 4351억원, 지자체 2288억원 부담

지방보육료 지원 잠정합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가 전체

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하고,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잠정 합의안이 뒤집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급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 가운데 4351억원(65.5%)은 중앙정부가, 2288억원(34.4%)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1일 정부가 2851억원(42.9%)을, 지자체가 3788억원(57.0%)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다음달 11일 시·도지사협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정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시·도지사협의회 결정에 감안할때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등 정부가 제시한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청장 등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11일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하는 안을 발표한 정부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을 산정해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인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세계 명차와 동행합니다-국내 유일 4WD 세단 뉴체어맨 W

CHAIRMAN FULL WARRANTY

제어맨 품질보증서비스  
국내 최고수준 5년/120,000km(일반 차체+엔진구동) 99% 말까지 중고구매에 한함

체어맨의 품격에 스타일을 더하다-2013년형 H

CHAIRMAN FULL WARRANTY

제어맨 품질보증서비스  
국내 최고수준 5년/120,000km(일반 차체+엔진구동) 99% 말까지 중고구매에 한함

2013년형 체어맨 W 특별혜택(택1)		2013년형 체어맨 H 특별혜택(택1)	
Super safe program	금용리스 프로그램	일시불	Amazing H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서비스</li> <li>② Amazing W Program(복합성 보험상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 월 리스료 299,000원</li> <li>1년 반값리스 (리스료 50%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항비 300만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최초 정액리스 (월 700,000원), Amazing리스 종료후 잔가 50% 보장, 체어맨 W 대차시 5% 특별지원</li> <li>1년 반값리스 (리스료 50% 면제)</li> </ul>
■ 로열티 프로그램 : 쌍용차 재구매 고객 70만원 지원 혹은 수입차, 타사차량 보유고객 50만원 지원		■ 직원모집 : 아래 각 영업소에 문의	
<p><b>구입문의</b>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첨단) 971-0990 • 동광주 515-1900 • 광주풍암 655-4001</p> <p>■ 전남권 • 순천 745-3666 • 순천중앙 723-7100 • 신여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p>			